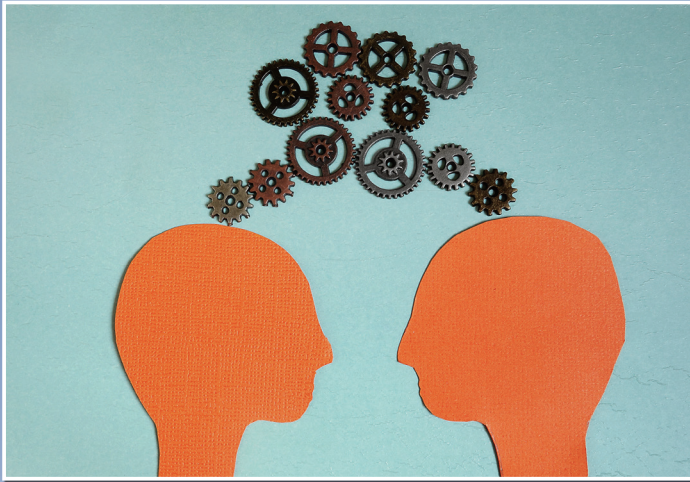




동일한 발상: 고대 **설화**와 현대 **진화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류를 흠으신다. 이때 인류가 흠어지며 같은 언어 집단인 나라(nations)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창 10장: 11:6-9). 그 후 인류는 흠어지며 다시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과거 사실은 단 한 세대만이라도 끊기면 다음 세대는 결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죄로 인해 죽음이 왔으며,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등의 진짜 역사를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고대 전설과 설화들은 당시 조상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전설과 설화는 사람들이 지어

낸 이야기이며, 이를 전승한 사람들의 사고와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건국설화와 전설들을 소개한다.

-고조선: 단군은 하늘 신의 아들인 환웅과 곰에서 여자가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라와 가야: 박혁거세와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는 알에서 났다.

-중국의 상나라: 시조인 '샬'은 제비가 떨어트린 알을 먹고 잉태되었다.

-베트남: 바다와 산의 신에서 난 딸이 낳은 100개의 알에서 난 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로마: 미(美)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후손과 전쟁의 신 마르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다 사람의 손에 자라게 되어 로마를 건국했다.

-이집트: 태양신이 하늘로 올라갔으며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호루스'가 어머니의 머리(head)를 자른 후 그녀의 머리를 소(cow)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잉카제국: 태양의 신 '인띠'가 창조한 자들이 첫 번째 왕국을 건설했다.

-아메리칸 인디언: 많은 설화에서 태양이나 달의 신이 등장하고 조개에서 최초의 인간이 탄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위의 건국설화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동물이 등장한다. 단지 건국설화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서유기'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나, 쥐, 소, 호랑이 등 12개 동물의 띠 등에서도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나, 또는 역으로 사람을 동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진짜 역사를 잊었을 때 진화론적 사고로 쉽게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이들은 태양이나 달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불렀다. 즉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진화론적 사고와 일치한다. 진화론자들은 먼저 만들어진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주어 무생물이 자연 발생하여 생물이 만들어지고 결국 가장 고등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 가운데 위의 설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설화는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진짜 역사를 잊었을 때 진화론적 사고로 쉽게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이들은 태양이나 달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불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는 진화론을 쉽게 믿는다. 가장 큰 이유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함으로써 그 내용이 과학 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진화론=과학'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설화에서는 동물이 사람으로 한 세대 만에 바뀌었다거나 알에서 사람이 났다는 식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반면, 진화론은 수억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진화론이 과학에서 나온 것인가? 아직까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진화가 일어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진화론자들이 진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는 돌연변이, 자연선택, 생존경쟁, 적자생존을 통해 종류가 바뀐 경우나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없다. 단지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질 뿐이다. 또한 화석에서 전이 단계가 발견되어 확정된 경우도 없다.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이 관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 스스로도 관

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 한 세대가 지나가지 전까지는 이 느린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Origin of Species, 1859)고 하였으며, 살아있는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수십 년 밖에 살지 못한다. 이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진화 진행을 보지 못한다”(Something From Nothing? A conversation with Richard Dawkins and Lawrence Krauss, 2012)고 하며 관찰된 적이 없는 진화에 대한 답을 긴 시간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루는 긴 시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물질을 따라가며 함께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공간과 물질을 이끄는 힘도 없다. 과학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조직을 이루며 점점 질서를 갖추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질서로 진행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은 시간이 진화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며 진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현대 진화론은 시간에 너무 과한 능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앞에 소개한 설화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이 과학이며, 시간이 무언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젖어 있어서 진화론을 비판 없이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수백 년 전 설화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지금 진화론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름이 없다. 모두들 우리의 첫 시작과 과거에 대해 하나님을 빼고 혼자서 깨달아 알려고 하려는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진화의 비현실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

이 더 발달했다는 오늘날은 더욱 큰 모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자연에게 너무나 큰 능력을 부여하며, 어떤 힘도 갖추지 못하는 시간에게 모든 것을 미루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시간을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창 1:1).

이와 같이 진화론은 과학기술이 미천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이 설화요 진화론이다. 결국에 사람이 동물 중에 하나이며, 생명이 태양에서 왔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과연 거기에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내 손에 성경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역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현실 세계에서 혼자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4, 5)

만약 교회가 진화 역사와 성경을 섞어서 믿으려는 ‘타협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 겪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진화 역사를 진리의 성경을 맡은 교회 안에서 이 비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계 1:8)인 예수님께서 계신 성경(갈 1:12)을 부정하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분이 행하셨던 창조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창조과학탐사

대구 하늘샘교회

지난 7/28-8/1, 8/11-15 두 번에 걸쳐 대구 하늘샘교회(담임목사 안무열)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앞선 창탐에는 주로 장년부, 뒤의 창탐에는 주로 청년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늘샘교회는 2년 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2주에 걸쳐 10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이미 창탐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



하늘샘교회 1,2



하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주목하였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시대에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교회 전체가 창탐에 참석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산 제일감리교회

지난 8/5-10 서산 제일감리교회(담임목사 이구일)에서 창탐에 참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와, 현재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진화론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산 제일감리교회는 지난 3월뿐 아니라 내년 3월에도 나흘간의 집회를 이 재만 선교사가 인도합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청년부

지난 8/24-30 부산 호산나교회(담임목사 유진소) 청년부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서산제일감리교회

다. 이번 창탐은 대구 은혜의샘교회, 천안 복된교회,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온누리교회, 일본의 Living Water Church 등에서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층에서 참석한 만큼 집중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들어있는 진화론적 사고가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이 성경으로 채워지는 감격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각 교회에서 창조과학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국제선교훈련원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8월 23일 은혜국제선교훈련원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기원에 관한 질문, 노아홍수, 사회 진화론, 타협의 거센 바람을 하루 종일 인도했습니다.

ITCM에 관한 안내

ITCM이 지난 기수로 10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과 강사님들의 헌신으로 매년 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2019-20 ITCM 기간은 재정비를 위해서 한 해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ITCM 11기 문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한 해 뒤를 위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시대에 기회로 만드는 더 많은 주님의 일꾼이 나오는 ITCM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청년부



그랜드캐니언의 놀라운 시간 간격들

그랜드캐니언의 평평한 퇴적암층이 창세기의 홍수 사건에 일치하듯 끊임 없이 빠르게 퇴적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자들은 그랜드캐니언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설명하려 열심을 낸다. 특히 “사라진 시간(Missing Time)”의 저자는 보이는 증거보다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랜드캐니언에서는 ‘시간’이 큰 이슈거리이다. 왜냐하면 드러난 지층에 대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곡 벽에는 약 1,200 m의 지층을 2억 5천 5백만 년에 걸쳐 퇴적되었다고 쓰여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연간 0.004 mm로 퇴적되는 속도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속도는 눈썹을 20년에 걸쳐 흙으로 덮는 시간이다(또는 물고기를 25,000년에 걸쳐 흙으로 덮는 시간). 하지만 그 어떤 지질학자들도 이 같은 난센스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들은 2억 5천 5백만 년 가운데 1억 9천만년이라는 가상의 시간 간격을 지층 사이의 경계에 쓸어 넣어버렸다. 마치 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랜드캐니언 지층에는 10개의 주요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각각 '수천 년에서부터 무려 1억 년'이 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구한 시간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서로 겹겹이 쌓인 지층들 사이에서는 어떤 불일치가 없고 시간 간격의 흔적도 전혀 없다. 물론 침식이 명백하게 일부 지역에서 보이지만 현재 주장되고 있는 광대한 시간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다. 실제로, 역동적인 1년 동안의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는 침식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구조학적, 퇴적학적, 그리고 지구화학적 조건이 거의 모두 확실하게 극심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랜드캐니언 역사에서 주요 지층의 4분의 3을 장구한 시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긴 시간 간격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층에 적용되는 긴 시간 간격은 충분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오래된 지구>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6천 5백만년 동안 지층이 쌓였더라도 연간 0.019 mm의 속도(속눈썹이 5년에 걸쳐 흙에 묻히는 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규모로 보자면 당신 찬장에 있는 면지가 더 빨리 쌓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신격변주의자(neo-catastrophist)" 접근 방식을 보다 많이 취하고 있다. 신격변주의자들은 전 지구적이며 한 번의 역사였던 홍수 사건을 믿기보다 한번에 10cm씩 되는 여러 빠른 폭발로 1,219미터가 되는 퇴적암이 쌓였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12,190개나 되는 가상의 '폭발'과 '5,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5,000년 안에 정말로 많은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수천 개의 오랜 간격 기간 동안에 토양 지평, 나무 그루터기 또는 협곡의 형태의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분명히 침식 속도와 퇴적 속도가 과거에는 크게 달랐어야 한다. 어떻게 동일과정설이 이다지도 쉽게 무시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연연하는 행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찰스 다윈은 그의 이론이 요구했던 "수많은 전이형태"의 화석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암석 기록의 "불완전성"을 탓하였다. 그러면서 퇴적물이 너무나도 간헐적으로 쌓였기에 진화의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핑계만 내놓았다. 즉 찾지 못하는 사라진 시간들을 언제나 전이화석 부재의 변명으로 사용하였다. 진화론과 광대한 시간은 불완전한 이론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암석 기록에서 전혀 어떤 진화의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캐니언에서 약 2억 5천 5백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척추동물이 물고기로 바뀔

게 진화되어 물고기에서 양서류, 그리고 원생동물에서 식물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진화나 광대한 시간의 증거는 아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랜드캐니언에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10개 이상의 "시간 간격"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곳은 레드월 석회암층(Redwall Limestone)의 상부이다. <오래된 지구> 책에 의하면 122미터 깊이의 수로(channel)가 하부 지층에 묻히기 전에 레드월 석회암층 윗부분 표면에 침식으로 깎여 형성이 되었기에 "수억 만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수로 밑부분에 둥근 자갈과 나무 화석들이 발견되기에 "오래된 강"이 한 때 석회암층의 표면을 배수했던 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부분의 자갈들은 처트(chert, 규질암)와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단단한 석회암층 표면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오래된 지구> 책은 석회토(lime mud)가 석회암으로 굳히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1년 동안의 홍수로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처트나 탄산염도 석회암(micritic limestone)이 형성되지 않기에 그 누구도 이 두 가지의 암석이 굳어지는 과정 속에 시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아닌 화학작용이며, 역동적인 홍수로 인하여 빠른 교결작용(cementation)은 충분히 가능하다. 수로의 모양대로 깎인 지역은 역동적인 전 지구적 홍수로 해저 침식이 일어났음을 예상케 한다.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나 명백한 점토층(soil horizon)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러므로 긴 시간 동안 지층이 대기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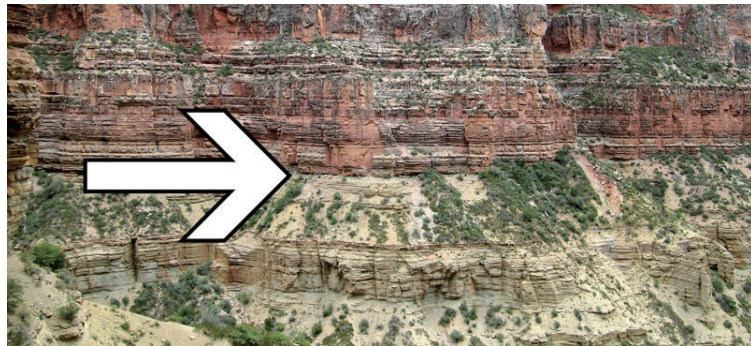
레드월 석회암 붕괴모습

또한 <오래된 지구> 책은 같은 경계 근처에서 레드월 석회암층의 일부가 붕괴된 것을 발견하고 먼 옛날에 동굴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만약 고대 석회동굴이 현재에 생기는 동굴들과 같이 표면 근처에 형성되었다면 한 마디로 대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

다는 말이지요 홍수 모델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랜드캐니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붕괴된 곳은 레드월 석회암층뿐 아니라 300미터 이상의 두께의 다른 지층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 지층들은 지하 표면에서 형성되었기에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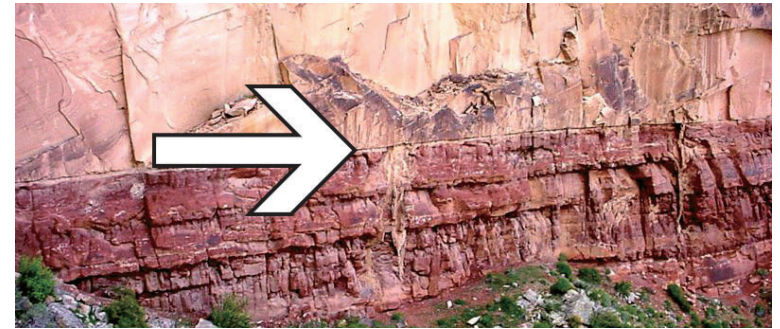
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물론 레드윌 석회암층에 있는 동굴들은 거의 표면에 가깝고 최근에 형성된 걸로 보이지만 이것이 현재 주장되고 있는 고대 동굴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계에서 광대한 시간이란 보이지 않는다.

그랜드캐니언의 또 다른 지층에서는 1억 년의 시간 간격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30미터 깊이의 수로들이 무아브 석회암층(Muav Limestone)에서 깎여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솔직히 당신은 1억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침식 주장보다는 더 굉장한 침식을 예상했어야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보자면, 오늘날의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Challenger Deep)까지는 약 19,812미터의 거리가 된다. 지질학자들은 이것들이 지구 역사의 지난 5백만 년 안에 형성이 되었다고 말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1억 년의 세월 동안에는 어떻게 될 지 한 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빈약한 깊이를 가진 수로가 1억 년의 잃어버린, 즉 사라져 찾지 못하는 시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창세기 홍수 때 같은 지층들이 만들어졌다는 홍수 모델을 반증(falsify) 하지 못한다.



무아브 석회암과 레드윌 석회암 경계

그랜드캐니언에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이끄는 결층(hiatus: 침식이나 무퇴적에 의해 층서학적 기록이 빠진 것으로 보는 면)은 바로 허밋 혈암층(Hermit Shale)의 윗부분이다. 붉은 색의 혈암층과 그 위에 놓인 하얀 코코니노 사암층(Coconino Sandstone) 사이의 경계는 그랜드캐니언 전체 길이가 되는 430 km까지 거의 평평함을 유지한다. 전망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간격은 '수천만 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시간 간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붉은 허밋 진흙이 '오래된 강'과 사하라 모래언덕 같은 코코니노의 백사장



허밋 혈암층과 코코니노 사암층의 경계

의 모래에 의해 퇴적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대기 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허밋 셰일층이 광대한 지역에 단 하나의 교각, 협곡 또는 수로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수천만 년 동안 침식에 노출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간격에 광대한 시간을 집어넣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랜드캐니언에 광대한 시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겹겹이 쌓인 지층 속에 상상의 시간 간격들을 집어넣으며, 이것이 지층이 대기 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증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 긴 시간적인 간격 동안에는 4분의 3구간의 암석층 기록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진화론은 이런 주장이 필요하겠지만 과학은 이런 주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지층은 끊임 없이 아주 빠르게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랜드캐니언 지층에 대한 최고의 해석 모델은 바로 창세기 홍수이다.

번역 / 서은주 ITCM 수료자



Bill Hoesch
M.S. Geology

- 이 글은 '그랜드캐니언,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 중 10장 사라진 시간: 암석 기록에서 틈들에 대한 반론' 글이다.

참고문헌

- Cliff Ollier & Colin Pain, The Origin of Mountains, Routledge, London, 2000
- "Deep time in 18th Century France," by Andrew Sibley (2019), Journal of Creation 33(1):85-101, 2019
- Derek Ager, The Nature of the Stratigraphical Record, Wiley, 1981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처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1 door로 갈 겁니다. 저는 자주 넓은 문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님만 따라 갈래요. 진화론과 대적할게요. 그리고 말씀에 더하지 않고 빠지도 않고 정확히만 따라 갈래요. <원천침례교회/이아인(초4)>

저는 학교에서 유독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창조과학을 가져다 줬을 때는 그냥 신이 났었는데 여기 와서 진화가 틀린 것을 알았고 또 진화를 좋아하는 동생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잘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주동은교회/양다함(어린이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행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하여 진화론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성경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동은교회/신동협>

처음 미국에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생각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깨졌던 진화론적 사고가 다

시 자리 잡을까 두렵지만 앞으로 진짜 내 신앙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고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주동은교회/서미례>

전능한데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세상 지식만 심어 준 저의 모습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답이 성경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보다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능한데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주동은교회/박인경집사>

창조과학 탐사를 오기 전 동은교회에서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 창조과학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고 듣기만 했던, 또 책으로 읽었던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더 가까이 예수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과 또 순종함으로 사역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주의 종들과 함께 빛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주동은교회/유수경>

처음 창조과학탐사를 신청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여행도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

날수록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내 행동과 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직접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주동은교회/김운정>

처음 창조과학탐사를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궁금하기도 해서 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깐 생각보다 무거운 내용을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사실이란 증거들을 보러 다니면서 이때까지 교회를 다닐 때 뭔가 불신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했다. 웬지 실제로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었다.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창조과학탐사에서 배운 것처럼 쓰임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전주동은교회/김하영>

올까 말까 하던 중 목사님의 권유로 오게 된 창조과학탐사. 그동안 진화론과 창조론에서도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창조론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나의 신앙의 등대로 삼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주동은교회/송현숙>

2019/2020 ACT Schedule

10/14-18	창조과학탐사 (뉴저지필그림선교교회), 이재만
10/19-25	창조과학탐사 (전성교회), 이재만
10/26-11/1	창조과학탐사 (베이직교회), 이재만
11/18-22	창조과학세미나 (대만국제은혜신학대학원), 이재만
12/6-8	창조과학세미나 (미네소타 다하나교회), 이재만
2020년	
12/30-1/2	창조과학탐사 (21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3-18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2/10-1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0-14	창조과학탐사 (일산대림교회), 김낙경
2/18-2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4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